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6월 20일(금)
..(음력 5월 25일)..
Пятница
20 июня 2025 г.
№ 24 (1214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941년 6월 22일, 대조국전쟁이 시작된 날을 대조국전쟁 시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와 희생주민들을 기리는 '추모와 비애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주에서 6월 22일 '추모와 비애의 날' 행사

6월 22일 '추모와 비애의 날'을 맞아 대조국전쟁 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과 동향인들을 기리는 <목념의 시간>과 <추모의 촛불> 전 러시아 행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린다.

6월 22일(일) 새벽 4시에 승리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청소년군관학교 생도들, 최고들의 활동가, 전 러시아 대학생 구조대와 적극적인 국민들이 추모지와 기념비에 모여 대조국전쟁 시 전몰한 장병들에 대한 추모로 '타오르는 그림'을 제작하고, 촛불과 램프에 점화한다. 낮 12시 정오에는 불멸의 성화에 화환과 꽃을 헌화하는 예식이 진행되어 이에 주지사를 비롯해 러시아의 참전 영웅들, 특수군사작전의 참전 용사, 청소년군관학교 생도, 사관생도들이 참여한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시 15분(사할린 시간 오후 8시 15분)에 '추모와 비애의 날'을 기리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목념의 시간이 선포되어 이 시간 티비 방송과 라디오 방송도 중지하고, 국민들은 머리를 숙여 20세기의 가장 참혹했던 전쟁을 이겨낸 가족과 친지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제자원봉사자 훈련센터에서는 승전 80주년을 맞아 <전쟁의 첫날>강연이 열린다.

'추모와 비애의 날'을 맞아 역사기념 박물관의 입장은 무료이며, 주제별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관과 극장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57명,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 지역 인재프로그램에 참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들> 지역 기획 시행에 따른 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을 위한 경연 결과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 게 보고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최전선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장병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은 국가의 주요 애국자이며, 조국 수호자들이다. 전투활동의 조건에서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한 사람들과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장병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사회진출의 통로가 될 것이다.

6월 23일에는 이 프로그램에 57명이 교육에 참가해 이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열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참가에 446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모든 단계를 244명이 통과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인원 선정 결과 전투에서 제대한 57명이 등록되었고, 현역 장병 30명은 예비 인자로 등록되었다. 교육은 몇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며,

사할린 국립대학교 지역 행정학교를 거점으로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의 기초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총 학업 시간은 520시간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은 해당 교육과정의 재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이 과정의 수료자들은 국가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 형식으로 조성되고, 이 기획의 각 참가자들을 위해 경험이 많은 교관들을 배정하여 잠재적 업무 환경에 좀더 빨리 적응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하나의 추가 방면으로 연방대학교와 추가 직업교육기관의 교사양성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른 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등 전문교육을 받은 장병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들의 직업 적응과 개별적 보조를 사할린주 고용노동청이 담당한다

동시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기초 프로그램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에게는 사할린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다른 직업진로를 선택할 경우 교육 참가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수준으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이 개별적인 사회진출의 진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키 거리 연장 공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조속한 마무리 요청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 건설작업을 시찰한 가운데

내년 8월 1일까지 2.2km 구간 도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대해 주지사는 6월 1일쯤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고리키 거리에서 지마 거리까지 도로 연장 공사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심에서 빠져나가 코르사코브 도로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외곽도로는 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차량도로는 4차선이고, 지마 도로에 가까워지면서 2차선 도로로 변경된다. 이 구간에서는 열란카 강을 통과하는 4차선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이 다리는 재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일정이 변경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설계자와 다시 상의해 여름 초반까지 기한을 연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6월에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도로 개통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첫째 겨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을 잊고 있는데 어떤 기온에서도 공사는 가능하다. 반드시 콘크리트를 깔아야 하고, 둘째 교량을 놓으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설공사도 병행할 수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5명의 건설 인력과 16대의 중장비 차량이 동원되고 있으며, 경사로와 옹벽 설치, 도로 밑 관개수로작업, 관개수로 밑 참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설들은 현대적인 모든 기준을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연장 도로에는 인도와 자전거 길도 조성된다. 도로 양쪽으로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과 조경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이 도로공사는 시로서 매우 중요한 공사다. 주지사는 건설작업을 가속화하여 예정된 기한보다 좀더 빨리 도로 건설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규모가 대단히 큰 도로공사이지만 목표는 현실적이다. 현재 시공사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미라' 거리에서 빠져나가 통과하는 지마 거리의 개건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고리키 거리와 미라 거리를 잇는 인체네르나야(엔지니어) 거리 건설기획의 문제를 개발하고 있다. 건설될 추가 교차로는 전체적으로 지역 내 교통량을 조절하고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리키 거리는 향후 오호츠크에 도로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현재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고 있는 미라 거리와 나란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도로들을 따라 교통량의 흐름이 분산되어 교통체증의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한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사할린한인단체 대표자 선정, '사망한 부모 2세대 문제' 추진

최근에 영주귀국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사할린 및 한국 단체와 활동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 **배순신** 기자가 사망한 부모 2세대의 영주귀국 권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장이자 마카로브 지역 향토박물관 관장 **고영순** 씨와 인터뷰를 하였다.

-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며, 어떤 업무 분야를 시급하게 생각하십니까?

- 2022-2023년 사할린한인문제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회를 계기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사할린한인 단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2023년 10월에 비영리 단체인 사할린연합회가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월 18일부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러시아 및 CIS 지역 사할린한인 지역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기관인 '자문위원회'를 포함해 연합회의 새로운 구조

를 확정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로스토브, 노위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알마티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간부회의에는 대한민국 모든 부처 및 공공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었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 알렉산드르 테체로위츠 (모스크바)가 선출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설립은 사할린한인의 정당한 권익실현과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 러시아 단체로서 사할린한인연합회는 사할린한인과 관련된 문제를 대한민국과 대등한 협력으로 해결하고, 동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의 목표는 사망한 부모의 2세대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사할린 한인 3~4세대의 지원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합회 설립 이후,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는 호소문 4건이 재외동포청에 전달되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



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연합회 자문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하여 재외동포청 주최로 인천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대받아 특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는 차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 부서를 창설해 젊은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연합회에서 그 외 여러 활동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연합회는 2025년 1월까지 전용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회의와 행사는 일회성 임대 공간에서 진행됐으나, 2025년 1월 초에 143.5㎡ 규모의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거든요. 이곳에 '사할린한인연합회 한

인문화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한국어 학습반 (2개)을 운영하고, 노년층 취미 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요리교실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교실을 진행합니다. 또한 한민족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사할린 주내 여러 지역에 진행되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군 병원과 협력해 지원활동을 하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돕고 있으며, 한국 측의 어떤 재정지원도 없이 운영됩니다. 우리 활동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순수한 열정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회장님이 최근에 대한민국 제주도를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성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 저의 부모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대한민국 제주도 출신의 뜻이 통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두루나눔'탈패의 심규호 전 단장과 양성완 고문 등, 이분들과 11

년간 알고 지내며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들은 탈패와 함께 거의 해마다 우리 마카로브시를 찾아오셨어요. 지난 5월 말에 마카로브 학생들이 양성완 회장님 초대로 제주도로 갔었는데 마카로브 어린이들에게 제주도 방문은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모든 경비는 역시 초청 측이 부담했고, 제주도 알리기 프로그램은 아주 좋았습니다. 새고려신문의 지상을 통해 양성완 회장님께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풍성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작은 지방도시 마카로브 어린이들에게 보여준 놀랍고,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이들은 이 여행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제주도 활동가들과는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연합회와 여러 기획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연합회의 자문위원회 활동가들은 사할린한인들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고, 개

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 정부 부처에 반복적으로 발송한 서한으로 국회의원들이 사할린한인 문제에 귀를 기울여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아 매우 기쁩니다. 다만, 2025년 6월 1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사할린 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최 측으로부터 초청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할린한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개최 소식을 시작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재외동포청에 공식 서한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는 사할린과 러시아-CIS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공동체로서, 모든 형식의 회의(학술회의, 원탁회의, 업무 회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행사와 기획은 많습니다.

새고려신문의 모든 독자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할린한인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이 모 저 모

해초를 곁들인 브라우니와 조개살 넣은 블리닉

사할린의 요리 및 조리사들이 '디코로시아'에서 독창적인 조리법을 공유했다. 6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할린에서 <디코로시아> 미식축제가 개최되어 행사에 18개의 요식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선한 지역산 식용 야생식물과 열매로 만든 창작 요리세트들을 선보였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상세히 전했다.

미식축제의 절정은 <조림 바림(굽고, 끓이고)>행사장에서 요리사와 조리사들이 진행한 열린 체험교실이었다. 방문객들은 요리 준비과정을 관람할 뿐만 아니라 사할린의 자연이 주는 선물로 만든 독창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공개 시식으로 샐러드와 차갑거나 따뜻한 반찬들과 독특한 디저트가 제공되었다. 선보인 요리들 중에는 사할린주 요리예술 및 서비스연합회 회원들이 준비한 명장 조리법들이 있었는데 '레스토랑 601'의 블라디슬라브 예르마코브는 <사할린식 푸른 샐러드>를, 레스토랑 '클류워'의 아나스타시야 베는 <식용 야생식물과 사할린의 조개로 만든 타르타르를 곁들인 블리닉>을, '롬카'가스트로 바의 아르쥘 우트킨은 <산마늘과 미소 소스로 그을린 사위크림을 곁들인 참치와 광어, 연어 롤>을, 빅토리아 부렌코와와 엘레나 스무트콕스카야 제과 조리사는 <해초에 진주빛 바닐라 소스와 아페롤이 섞인 오렌지 소스를 곁들인 브라우니>를 선보였다.

이 행사는 사할린지역 관광부와 지역 관광 안내센터의 지원으로 요리예술 및 서비스연합회가 주최했다.

미식마라톤의 총결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브라우니 с морской капустой и блины из спизулы: шеф-повара с Сахалина поделились рецептами на «Дикоросии»**

С 2 по 15 июня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трет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Дикоросия».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18 ресторанов,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авторские сетсы с блюдами из свежих местных дикоросов и ягод.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инальной точко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стал открытый мастер-класс от шеф-поваров на площадке «Жарим Варим». Гости не только наблюдали за процессом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о и с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оригинальные блюда с дар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природы.

Публику угощали салатами, холодными и горячими закусками, а также необычным десертом. Среди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блюд — фирменные рецепты от участников Ассоциации кулина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серви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Ермаков (ресторан «601») — «Зеленый салат по-сахалински»;

Анастасия Бе (ресторан «Клево») — «Блины с тартаром из дикоросов и сахалинской спизулы»;

Артем Уткин (гастро-бар «Рюмка») — «Рулет из тунца, палтуса и лосося с копченой сметаной из черемши и мисо-соусом»;

Виктория Буренкова и Елена Смутковская (шеф-кондитеры) — «Брауни с морской капустой, ванильной жемчужиной и апельсиновым соусом с апероло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а Ассоциация кулина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сервис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Итог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подведу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사할린에서 120명의 여성들을 위해 이틀간 <엄마 축제> 개최

6월 14일(토) - 15일(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야크' 아트센터에서 <마마페스트(엄마 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120명이 넘는 임산부와 젊은 엄마들이 방문했다.

사할린 여성들이 산모 등록부터 출산하기까지 여성들을 보좌하는 의사와 심리학자, '행복의 안내자'의 담당자들에게서 상담을 받은 가운데 사할린주 사회복지부의 올가 오를로와 장관은 이번 축제와 상담은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모든 여성들이 배려와 지원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고 했다. '행복의 안내자'는 이런 형식으로 엄마가 되는 것이 더욱 편안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엄마 축제>를 통해 산모와 젊은 엄마들은 국가지원책을 알게 되었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주최 측은 <엄마 축제>가 단순한 행사로서만 아니라 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중한 정보를 얻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축제라고 강조했다.

<엄마 축제>는 특히 '행복의 안내자' 기능에 관심을 기울였다. 해당 전문가들은 사할린주의 미래 엄마들에게 모든 임신의 단계를 돕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나, 생성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있다. <엄마 축제>는 어떻게 하면 사할린주 가정생활이 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이 행사는 '행복한 모성' 프로그램 실행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Двухдневный «МамаФест» для 120 женщин про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МамаФест» ше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дней — 14 и 15 июня —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Его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20 будущих и молодых мам. Сахалинки получи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врачей, психологов и «проводников счастья» — кураторов,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ют женщин от постановки на учет до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оцзащиты Ольга Орлова, фестиваль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оводят, чтобы каждая женщина чувствовала заботу и поддержку от беременности до первых лет материнства. С этим также помогают «проводники счастья»,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материнство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Благодаря «МамаФесту» будущие и молодые матери смогли узнать о мерах господдержки, пообщаться с экспертами, получить персон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МамаФест» — это не просто мероприятие, а возможность отдохнуть, получить ц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общаться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и зарядиться энерги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МамаФесте» уделили роли «проводников счастья». Д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ают будущим матер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сех этапах беременности. Они решают как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так и бытовые вопросы.

«МамаФест» на деле показал, как можно менять к лучшему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8면에 계속)**

기대를 안겨준 사할린 동포를 위한 포용정책 토론회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지난 6월 18일(수)한국 국회회관에서 <사할린 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이재강·국회의원 양문석, KIN(지구촌동포연대)의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양문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 진보당 국회의원 정해경, 사할린 한인협회,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 연합회, 대한고려인협회·KIN(지구촌동포연대)가 공동주최해 진행되었다. 4시간 이상 열린 이 정책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열려 약 50명이 참여했다. 사실 수많은 사할린인들이 이에 관심이 많았는데 러시아에서 유튜브 방송 제한으로 온라인상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 토론회 영상은 '코레이스키 텔레그라프' 텔레그램 채널에서 관람 가능).

올해 수많은 역사의 굴곡을 겪은 사할린동포의 포용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정책토론회의 진행을 사할린한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가 맡았다.

회의 참석자들을 환영하면서 이재강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문제가 책임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 오랜 세월 감춰졌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게 하겠다."며 "사할린 동포들의 삶이 더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연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문석 의원도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남북분단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비극의 희생양"이라며 "사할린 동포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할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박순옥 회장, 이세르게이 청년회장, 임 엘비라 주한인협회 고문이자 사할린국립대 언론·역사·역사학 대학 학장이 참석하여 '사할린 동포사회가 바라는 포용정책'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순옥 회장은 "올해는 한국의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75년 만에 제정된 특별법은 일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이 법은 한국에 영주귀국하여 살고 있는 사할린한인 1,478명과 사할린에 남은 307명의 사할린동포 1세대와 그 직계비속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제로 끌려온 사할린 동포 1세는 대부분 특별법 제정 전에 세상을 떠났고 영주귀국을 못 했습니다. 아니면 영주귀국을 했는데 특별법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영주귀국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 엘비라 고문은 이날 사할린주 이산가족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 주한인협회에서 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 영주귀국 사업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자료 중에는 특히 '출생 연도별 영주귀국 현황', '사할린동포 1세 지역별 거주 현황', '사할린 동포 2세 사할린 거주 현황',

'사할린동포 사할린 지역 외 지역별 거주 현황'등의 도표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임 고문은 "현재 2025년 설문조사에 따라 1931년 전에 출생한 1세의 자녀, 즉 사망한 가정의 자녀 1 235명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할 마음 준비가 돼있습니다. 1932-1945.08.15년 사이에 출생한 1세의 자녀는 97명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할린 동포 특별법의 대상자가 못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면 이분들이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어 영주귀국을 못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라며 "더 늦기 전에 광복 80주년 때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가족들이 영주귀국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침 사할린 동포들의 염원을 경청한 양문석 의원님이 사할린 특별법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이 소식을 벌써 다 알고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방 8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할린 동포 특별법을 이번 국회임기 내에 꼭 개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은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하는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고 특별법에 따라 기념사업 지원도 부탁하고,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예술·전통·스포츠 등에 관심 많은 사할린한인청년회 회원들을 생각하여 청년회가 추진하는 기획들에 한국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일본 홋카이도대학 파이차제 스페틀라나 교수는 이날 '영구 이주를 위한 재이주 사례 비교: 일본의 재이주 프로그램'으로 발제하여 일본의 영주귀국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 귀환자에 대한 법률, 현금 및 지원 제도 등을 설명하고, 귀환자 현황과 수를 알렸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이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여 재외동포청의 요청으로 한 사할린동포 연구결과를 밝혔다. 윤 소장의 발제에는 특히 사할린 귀국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종합토론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정영순 대



한고려인협회장,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법무부 최문정 이민통합과장은 한국 국적 취득 관련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사할린 동포에 대한 보다 큰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사할린 현지에 계시든 국내에 체류하시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영주귀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서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하였다.

사할린동포 포용을 위한 토론회는 사할린한인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으며, 이들 모두가 양문석 국회의원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체계가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키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대표단 한국방문 결과를 발표하며 사망한 부모 2세대와 공개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주최측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스크바 협의회(회장 박형택)와 러시아 동부지역 협의회(회장 황돈연)는 2025년 6월 1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지무트 시티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광복 80년, 미완의 독립운동과 통일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 도시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러시아에 설치한 외교 공관이 있던 곳이자 한러 외교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독립정신을 재조명하고, 미래의 통일을 위한 소중한 유산으로 삼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박형택 모스크바 협의회장과 황돈연 러시아 동부지역 협의회장의 공동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에는 조성관 주러시아대사관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드미트리 박고려인 자치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학술대회 1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

김광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광복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광복 80년, 미완의 독립운동과 통일의 과제』 학술대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대하게 개최



에게 남은 분단이라는 현실을 돌아보며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과 독립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의 역사를 남기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범진 공사의 후손이자 헤이그 특사 이위중 선생의 증손인 율라 피스콜로바 박사가 이범진 공사의 외교적 노력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피스콜로바 박사는 특히 당시 국제사회에서 이범진 공사가 한국의 주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과정을 다양한 자료와 사진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또한, 김경천 장군의 후손인 필란스카야 갈리나와 필란스카야 일레나 자매는 김경천 장

군이 러시아와 만주 지역에서 펼친 항일투쟁과 삶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의 발표는 김경천 장군의 기록들과 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학술대회 2부: 역사적 성찰과 미래를 위한 토론

모스크바 협의회회의 이철수 자문위원은 러시아 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심도 있게 발표하며 당시 고려인 사회의 독립운동에 관한 상세한 역사적 자료를 소개하였다. 발표 이후,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과 함께 재러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교민과 고려인 단체 대표들

은 독립운동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며, 통일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 인터뷰

박형택 모스크바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 전역의 자문위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현재 우리 민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돈연 러시아 동부지역 협의회장은 "역사적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가 러시아 내 동포 사회에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을 강조했다.

김광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회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убличное обсуждение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8 июня 2025 г. в зале засе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ось публичное обсуждение инклюзив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легацию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ли Пак Сун Ок,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Лим Эльвира,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Ли Серг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сновная повестк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следующими докладами:

Доклад 1: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вопросу интеграции (Пак Сун Ок, Лим Эльвира, Ли Сергей / РООСК)

Доклад 2: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программ репатриации: пример Японии (Светлана Пайчадзе / профессор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клад 3: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Юн Ё Сан /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архивов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рганизаторы: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Ли Джэ Ган, Ян Мун Сок;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а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Организатор (инициатор):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Ён Сон, Ли Дже Ган, Ян Мун Сок;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артии обновления Отечества Ким Джун Хён;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рогрессивной партии Чон Хе Гён;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коре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KIN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а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Доклад сахалин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на тему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вопросу интеграции» представил следующие темы:

* расширенный анализ динамики данных и результато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о возвращ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Корею за период с 1992 по 2024 г.;

* аналитический отче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анкетирования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й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и ближайшим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 предложения к обсуждению основных недоработок по тексту принято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 стратегия и план работы по интег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и и сохранению их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80 лет со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о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не решены. Принятый спустя 75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ишь частично решил проблем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кон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олько на 1478 человек, вернувших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ю, 307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гласн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родившихс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и их детей.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вез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так и не дожили до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ни

либо умерли, не успев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либо скончались уже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И теперь их дет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родителей.

На основании имеющихся архивных данных, собранных Обществом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РООСК в период с 1992 по 2024 г., был проведен расширенный анализ.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числ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дившихся в период с 1932 года п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и получивших разрешение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 Корею, а также их супругов и одного из детей с супругом(ой), в три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количество репатриантов, родившихся до 1931 года.

Пак Сун Ок: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то испытал на себе все тяготы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нета — работавших в шахтах, на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рог — не с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ом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Многие из тех, кто родился до 1931 года, не дожили до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Тем не менее, мечта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не покидала их до конца жизни. Их дети — потомки тех, кто умерал со словами „Хотим домой“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нить последнюю волю родителей. Многим уже под 80 лет. В силу возраста они рискуют не дожить до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ок и получ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репатриации».

Лим Эльвира: «В чем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грамм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а инициирована с благородной целью — восстанов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жертв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вывезены на Сахалин. Однако сегодня мы сталкиваемся с трагической реальностью. В 2025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80 лет со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о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ушли из жизни задолго до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х потомки — также жертвы исторической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фактически лишены права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Ли Сергей: «Проси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то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патронажем РООСК находятся три памятника,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на проведение раскопок в районе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Благодаря рассекреченным послевое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уда было выявлено, что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полицией и гражданскими лицами происходили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на Сахалине.

Совместно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ы реализуем проект помощи первому поколению, посещаем каждый район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здоровья лиц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котором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участники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волонтер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реализуются ряд проектов: проект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лимпиады и конкурс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фестивали и др.»

В диску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коре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Квон Ген Сок, Глав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Тен Жанна, адвокат юрид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Токсу» Чо Ён Ган.

Свои вопрос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ласти зад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ехавш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 Зале заседаний составило более 70 человек и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наблюдали за рабо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один голос поддержали инициативу депутата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Ян Мун Сока, предложившего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ключ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их супругов,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задолго до принятия последних решений.

Публич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о особенно важным в год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и 60-летия заключения 22 июня 1965 года в Токио Соглашения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Японией.

Лим Эльвира: «Данная встреча требовала тща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Учитывая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анализа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была продумана форма подачи материала, определены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состав участ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архивным материалам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РООСК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такой анализ. Напомним, ровно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января 2025 года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стреч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 вопросу репатриации. Совместно с KIN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За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был определен план подготовки к предстоящей мероприятию.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 май, но в связи со сменой вла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назначением нового сост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наделения полномочиями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еренести на июнь. Было жела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и обсудить важны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ы с впрямь действующи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ак Сун Ок: «Мы благодарим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убличном обсуждении лично и онлайн, за поддержку и решение объединить силы.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нашим сахалинцам,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анкетировании, кто поддерживал весь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Без вас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ы не имело такого масштаба и резонанса».

28 июня 2025 г. в 11:00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треч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с участием делегации от РООСК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ая встреча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до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 Мира, 83а)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РООС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G7

16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отправился в Канаду для участия в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G7). РК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в качестве гостя вместе с Австралией, Бразилией, Индией, Мексикой, ЮАР и Украиной. В рамках своего первого зарубежного визита в долж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н провел двусторонние встречи с лидерами ряда стран мира, как членом G7, так и приглашённых на саммит в качестве гостей.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Бразилии Луисом Инасиу Лула да Силв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развитии всеобъемлющих партнё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Индии Нарендрой Мод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апомн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1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особ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ё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ыйдут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Мексики Клаудией Шейнбаум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б укреплен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основ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ё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Ли Чжэ Мён встретился также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Кириакосом Стармер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вопрос пересмотра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требует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гресса»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танет хорошей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Канады Марком Карни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ы,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НДР направит в Россию сапёров и военных строител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аправить 1 тысячу сапёров и 5 тысяч военных строителей для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й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азрушенных объектов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7 июня секретарь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Сергей Шойгу, подводя итоги визит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н отметил, что главной целью визита было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бе стороны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собен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Шойгу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рям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более 30 лет назад, возобновится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Это был уже второй с начала июня визит Сергея Шойгу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РК и Япон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17 июня в канадском Калгари,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э Мё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гэру Исибы. Это была их первая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Ли Чжэ Мён приступил к обязанностям президента. Ранее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и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о время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через четыре дня после инаугу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В ходе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продолжавшейся 30 минут,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заявил, что две страны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е на будущее. Поскольку проблем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олжают нарастать, такие близкие и взаимодополняющие партнёры, как РК и Япония,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ольшую выгоду о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 многих областях, -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игэру Исиб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активизировано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60-й годовщины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как двустороннее, так и трё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частием США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различны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Они подтвердил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ю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РК заняла 27-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РК заняла 27-е место в ежегодном рейтинге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нститутом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IMD) в Швейцарии. Она опустившись на семь позици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когда достигла своего наивысшего результата - 20-го места.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за 2025 год IMD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69 стран, включая государства-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и ведущие развивающиеся экономики.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Швейцария, за ней следуют Сингапур и Гонконг. США опустились на одну строчку, заняв 13-е место, Китай — на две, до 16-го места. Япония поднялась на три позиции и заняла 35-е место.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ООН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стретился 17 июня в канадском Калгари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ООН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ем. По сообщению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ан Ю Чжон, Ли Чжэ Мён подел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ООН опытом преодол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стране.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 предложил Ли Чжэ Мёну рассказать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демократии в РК на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РК будет играть ведущую роль в Азии, а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интерес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Ли Чжэ Мё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ОН ещё многое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ради мира во всём мире, и он будет думать о том, как РК может отблагодари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за помощь, полученную в прошлом.

KBS World

Из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выплатят субсидии

18 июн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состоялись закрыт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ы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согласованы детали втор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извести денежные выплаты всем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общий объём выплат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2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14,5 млрд долларов). Гражданам будут выданы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упоны, а уязвимые слои населения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Конкретные размеры выплат пока не разглашаются. Параллельно,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лго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накопившихся после пандемии COVID-19. Средства на списание этих долгов уже заложены в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доходов», то есть, пересмотре бюджета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оказались ниже прогнозируемых. Данный пакет мер,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ки и поддержку граждан, особенно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групп,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ну из ключевых инициати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KBS World

Ли Чжэ Мён делает новые смелые попытки инициировать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15 июня, в день 25-й годовщины подписания Совместной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2000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ил с обращением, в котором пообещал восстановить прерванные каналы связ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Это стало продолжением линии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нормализовать связи с Пхеньяном,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еул сделал уже ряд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Однако КНДР пока хранит молчание.

"Пора прекращать конфронтацию с Пхеньяном..."

Сдел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Ли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прямым указанием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ересмотра нынешней конфронтационной практик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от 15 июня 2000 года стала поворотной точкой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показ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ми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заявлени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кратит бессмысленные акты враждебности" и со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диалог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то же время Ли выразил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тем,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итуация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откатилась назад", и подчеркнул: "Если разрушается мир, под угрозой оказываются экономик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ам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раждан".

За запуск листовок в сторону КНДР будут наказывать

Это заявление стало логическим продолжением шагов, предпринят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Ли в течение менее чем двух недель, прошедших после его инаугурации 4 июня. Уже 9 июн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выразило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запускам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истовок рядом активистских групп и призвало к их немедленному прекращению. По мнению властей,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создают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ограничной зоне и провоцируют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При этом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ало понять, что намерено не просто "рекомендовать", а будет добиваться выполнения его пожеланий и наказывать, если его позиция какие-то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Юга попытаются проигнорировать. Так, 10 июн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Ли поручил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включая МВД,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подготовить юридически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пресечения запусков листовок.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потребовал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возможное применение Закона об ави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кона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и Закона о контроле за обращением с сжатыми газам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выработать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за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13 июня Ли Чжэ Мён посетил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пункт 25-й пехотной дивизии в приграничном уезде Ёнчхон и провёл встречу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Он зая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допустит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из-за действий отдельных групп,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запускать листовки в сторону КНДР, дестабилизируя ситуацию.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если запуски продолжатся, то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14 июня Ли Чжэ Мён снова обратился к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 от полиции до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 и дал указание подготовить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Среди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мер - создание запретных зон, введение реж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ования, ограничение доступа к пограничной полосе,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готовки новой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16 июня ожидается перво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совещание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Как сообщили СМИ, полиция РК уже приступила к расследованию случаев обнаружения 14 июня в уезде Канхва в Инчхоне и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г. Кимпхо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 трёх аэростатов с привязанными к ним экземплярами Библий, продуктами и прочими материалами (никаких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истовок не обнаружено). Как сообщается,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будет вестись "с прицелом" н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ётов. Кроме того, полиция намерена действовать на упреждение и проводить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границе наконец-то тишина

Ранее 11 июня было дано еще одно указание - прекратить все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ьные трансляции, ведущиеся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направлении КНДР. Эти трансляции были возобновлены ранее в ответ на запуски Пхеньяном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мусоро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Пхеньян это заметил и тут же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еагировал. Уже 12 июн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ответ также отключила собственные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 впервые з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в приграничной зоне воцарилась тишина.

Параллельн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суждаются и другие шаг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инициирование контактов с Пхеньяном и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ложить КНДР возобновить гуманитарные обмены, перед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оказавших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дах, и возможно в перспективе реанимировать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военных инцидентов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Север пока молчит

На фоне этих инициатив Пхеньян пока сохраняет полное молчание. Ни одно из заявлений Сеула не получило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вета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В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ключая прямую военную связь и Совместный офис связи, остаётся недействующей. С 2023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ляет Южную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подчёркивает, что больше не намерена общаться с Сеулом -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находится у власти либеральное или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Ким Чен Ын два года назад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что больше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Юг как страну, с которой нужно объединяться, а отношения с Сеулом будут строиться "как с обычным соседн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торое ведет против нас враждебную политику".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ксперты Юга призывают не отчаиваться, указывая, что КНДР как минимум все замечает и учитывает и тоже прекратило свое вещание через границу. Кроме того, Пхеньян, как минимум, до сих пор не делал критических заявлений в адрес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что с учетом крайне напряж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многого стои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йствия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отражают курс на отказ от конфронтации и постепен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еханизмов диалога с КНДР.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е шаги - от прекращения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до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запусков листовок -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серьезности намерений нов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Однако отсутствие реакции Пхенья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пауза с Москвой и возможная параллельная игра Вашингтона, пытающего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нициировать диалог с КНДР, создают непросты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внешние условия. На этом фоне остаётся открытым вопрос - смогут ли символиче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шаги Сеула перейти в фазу реального диалога, или останутся односторонним проявлением воли, не встретившим отве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RKI

57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зачислены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кадровую программу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Губернатору региона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По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 уже 23 июня к обучению приступят 57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Считаю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ым, чтобы каждый воин, который возвращается с передовой, мог найти себе достойную работу. Это главные патриоты страны, защитники Родины. Люди, которые в условия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иобрели новые навыки и компетенции. Эта программа - это фактически карьерный лифт для наших бойцов. И уже 23 июня 57 человек приступят к обучению, после чего определятся с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ей. Я лично встречусь с каждым участником программы, выслушаю их и расскажу, чем мы занимаемся, какие есть перспективы, чтобы они легче могли понять, ка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них открываютс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одали 446 человек. Все этапы прошли 244 человека.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зачислено 57 де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Еще 30 действующих бойцов зачислены в резерв.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идти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снов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основ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и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Обучение включает 520 академических часов.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по данному курсу пройдут участники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Ее выпускники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в очно-заочной форме. За каждым участником проекта закреплен опытный наставник,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ему быстрее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на потенциальном месте работы.

Еще од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подготовка педагогов в Федераль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 учреждениях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дру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востребованы в регион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могут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со средним специ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К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сопровождению будет привлечено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у нас запустилась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Было подано более 450 заявок, отборочные этапы проходили ребята пр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фондом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каждом этапе, наши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сопровождали всех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Отборочные этапы завершили 7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7 приступят к обучению уже 23 июня. При это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тех, кто не прошел в основно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сопровождать дальше. Ребятам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аться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бо, если выберут другой трек, им по линии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будут предложены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арьерные трек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сказать ребятам и рассказать, какие есть треки с тем уровнем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у ребят имеются. Дальше мы так же будем их сопровождать по всем остальным этапа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Сабина Кушевская.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последующ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курс «Военное дело»,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восьми областных школах с января 2025 года.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оддержа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и российским движением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 В списке участников включены и действующие сотрудники наших областных школ. Всех поддерживаем, достойные кандидат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тметим,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Цель - включить в резерв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адров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оявили себя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хотя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коммерческом секторе,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Способност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оцениваются по методике РАНХиГС, успешно апробированной в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Время героев».

Контакты для связи по вопросам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телефон: 8 (4242) 557410 Email: Geroi65@sakhalin.gov.ru.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летний трудовой сезон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В День России, 12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Вс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удотрядов станут 3 тысячи

студентов. Все они попробуют свои силы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на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 Друзья, с Днем России! Мы гордимся нашей страной. Сильной и независимой державой. Которая отстаивает свои ценности и уверенно идет вперед. Сегодня для активных ребят мы открываем летний трудовой сезон. Вы будете трудиться в самых важных отраслях.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едицине, образовании.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такой настрой. 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помогаем вам в реализации ваших идей, обучении, дальнейшем карьерном росте. Желаю вам продуктивной работы,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новых открытий! Вперёд к новым достижениям и развитию нашей области! С праздником!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студотряд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оект дл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В этом году сформировано 30 отрядов, более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будут трудоустроен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з них 1800 студентов прибудут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Совсем скоро в свой первый летний трудовой семестр выйдет отряд провод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се они будут трудоустроены в ПК «Сахалин».

- Я являюсь куратором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водников». Это довольно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озникло в 2025 году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нашем направлении 20 студентов, 12 из которых буквально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отправятся в свои первые рейсы, - рассказала Валерия Чен.

Традиционно вожатые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отрядов отработают летом во всех детски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ях региона.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состав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Авангард» полностью состоит из действующих участников и выпускников студенческих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Трудовые отряды подростков выйдут в летний трудовой семестр и в качестве техниче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а также в конноспортивном клубе «Аристократ», в качестве аниматоров в студиях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региона.

- У меня три отряда, всего - 83 человека. Все они сахалинцы. Этим летом ребят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о всех лагер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ш слоган, которым мы руководствуемся - «Гори, чтобы светить, гори, но не сгорай»,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Игорь Панченко.

Самы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стали студенческие строительные отряды. Этим летом участники отработают в ведущ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ях региона: АО «Мостострой 11», РСО «Инжиниринг», ООО «СКФ «Сфера» и других.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стится строительно-сервисный трудово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 на котором будут трудиться порядка 60 студентов.

У ребят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ООО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ООО «ВГК» и ООО «Север», потребности компаний уточняются) отраслей. Еще одно популяр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 числу приезжих студентов - рыбодобывающая отрасль. В этом году на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заводы региона выйдут 9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путинных отрядов.

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опорной площадкой по развитию студенчес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отряд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рудоустраивают бойц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в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ряда «Галиотис». В этом году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удет трудиться 81 студент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акж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стал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ерво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ервисного трудового проекта «Первый рассвет». В этом году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отработают 105 островных и приезжих студентов.

Отметим,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латформа дл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Региональный штаб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организу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е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карьерные форумы, встречи и консультации,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чтобы привлекать молодых островитян и приезжих студентов для ра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на Сахалине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Фонда Росконгресс откры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2 августа.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указанные поля. Подробная инструк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вый регион в России, в ко-

тором с 1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вод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углеродного баланса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апробация механизма квотирован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Форуме подведут промежуто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эксперимента.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строится на укрепл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России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с акцентом 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НГ, БРИКС, ШОС, ЕАЭС и другими) и Большим Евразийским партнерством.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климата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достижения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экономике.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и цели форума - экспертная проработка острых и значимых вопросов будущ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бмен опытом со странами, имеющими экспертизу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истем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торговли выбросам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честве площадки для обмена прак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в ходе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ТР.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е форума присоединятся до 10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тран АТР и участников «БРИКС аутрич/БРИКС плюс»,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России, ведущи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уче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Форумы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ются выезд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десятого, юбилейно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ЭФ),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3-6 сентября. Здесь же, на дронапорте «Пушистый», 6-8 сен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 25-26 сентября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Оператор форумов -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Компания Wildberries&Russ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на Сахалине

Компания РВБ (Объединенная компания Wildberries&Russ)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заключено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основатель Wildberries, глава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мпании Wildberries и Russ Татьяна Ким.

Петербург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 одно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и значимых деловых событий в мире. ПМЭФ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1997 года. С 2006 года форум проводится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и при участ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24 году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более 1070 соглашений на общую сумму 6 триллионов 49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островных властей и руко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Wildberries&Russ.

- Мы стремимся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комфорт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А это подразумевает не только стаби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людям очень важна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азать нужную вещь и оперативно получить свою посылку.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это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мелочью. Но часто именно мелочи определяют, будет ли человек жить в регионе, делать карьеру на пользу себе и стране. Или же он соберет семью и уедет туда, где эти проблемы решены. Поэтому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намерение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мпании Wildberries и Russ построить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на Сахалине и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Wildberries&Russ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самым отдаленным объектом компан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доставке заказов не только внутри самого региона, но и в цел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ы н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ли наше стремление обеспечивать качество лог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даже в отдаленных уголках страны. Уверены, что успешна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д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и станет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разви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основатель Wildberries, глава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мпании Wildberries и Russ Татьяна Ким.

Объединенная компания Wildberries и Russ управляет более чем 130 логистическими объектами общей площадью свыше 3 миллионов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еще 2,5 миллиона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кладских площад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전세계 70개국 차세대 2천600명, 뿌리 찾으러 모국 온다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17일 시작 재외동포협력센터 주관, 8월17일까지 1주일씩 9차례 연수 진행 올해 광복 80년 맞아 정체성·세계성·연결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전 세계 70여개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 2천600여 명이 모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2025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연수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주관한다.

이날 인천 영종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연수 개회식에는 26개국 차세대동포 2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6박 7일 동안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을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모국의 역사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산업 발전상을 보여주는 산업체 현장도 돌아본다.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삼양라면 공장, 첨단 바이오산업의 현장인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모빌리티 산업 현장인 현대모터스튜디오 등을 방문한다.

8월17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연수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천600명 이상의 차세대동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청소년(만15~18세)과 청년(만18~25세)을 대상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열리는 연수는 회차별 270여 명이 참여해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다.

※ 재외동포 청소년: 1차 6.16~6.22 △2차 6.23~6.29 △3차 7.7~7.13 △4차 7.14~7.20 △5차 7.21~7.27 △6차 8.11~8.17

※ 재외동포 청년: 1차 7.8~7.14 △2차 7.22~7.28 △3차 8.5~8.11

특히 올해 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체성(Koreanity) △세계성(Globality) △연결성(Connectivity)*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한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정체성: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함양 △세계성: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감 증진 및 공동발전 △연결성: 글로벌 한인 역량 강화 및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

이상덕 청장은 제1차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가 유대인, 화교, 인도인만큼 네트워크를 못가졌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됐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고생하신 바탕위에 여러분은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한민족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때가 됐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취지도 이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 기간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이다.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센터장도 “이번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내년 동포단체 지원예산, 100배 올렸다" 김민철 동포청 교류협력국장, 프놈펜서 밝혀새 정부 재외동포 정책방향 크게 4가지 소개

6월 11일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시아한상총연합회 캄보디아 대회'에 재외동포청에서 이상덕 청장은 참석을 못하고, 김민철 교류협력국장이 대신 참석해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방향에 대해 밝혀 참석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청장을 대신해 참석하는 경우 축사를 대독하는게 관례이나, 이번 자리에서는 김국장이 재외동포정책 소관 정부부처를 대표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10여분 가량 소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외동포 행사에서 정부 관계자가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국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 대통령실에 재외동포정책을 보고했다.”면서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김 국장은 가장 먼저,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강 의원이 말씀했듯이, 재외동포사회가 이번(대선)에 큰 힘을 보여주셨다”면서 “그런 역량들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대륙별 총연합회와 세계한인총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 차세대들이 전면에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차세대를 융합하고 앞으로 끌어내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선)공약집에도 나와 있는데, 동포단체들이 민간외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 저희(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두 번째 정책방향”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세 번째 방향은, “오늘 이 행사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이기도 하지만 아시아한상대회이기도 하다. 한상대회의 목적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상품소개를 하는 역할인데, 이를 대륙별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 김 국장은 “이 또한 공약집에도 나와있고 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차세대 육성 및 한인 인재 유치를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고려인, CIS 지역에도 많이 있는 동포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통해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또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연계해서 인턴 사업을 하는 방안을 세계한인총연합회에서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으로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국장은 “세계한인총연합회와 대륙별 연합회를 합쳐서 내년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100배 정도 올려서 제출했다.”면서 “그 예산이 전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새 정부에서 우리 동포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의 박수를 받았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2025년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박병헌(1928~2011년)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을 선정했다.

경남 함양 출신인 박병헌 전 단장은 1939년 12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뒤, 해방 후 재일동포 청년 운동을 시작으로, 민단의 리더로 성장하며 재일동포 권익 신장과 모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재학 중 재일학도의용군 결성에 동참하며, 구국 전선에 직접 뛰어들었다. 미군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에 처음 투입된 그는 이후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해 본격적으로 용문산전투 등 격전지를 누비며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쳤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재일동포의 조국 수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9년 인천 수봉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를 세웠고, 훗날 민단 중앙당장에 오른 뒤에는 참전 동지 및 단원들과 함께 일본의 민단 중앙회관 앞에도 기념비를 건립했다.

박 단장은 재일민단의 총무국장, 부단장을 거쳐 단장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리더로 활약하며 민족 단합과 모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1970년 개최된 일본 오사카 엑스포(만국박람회) 한국관 설치를 위해 조직된 '재일한국인민국박람회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관을 건립하고도 남을 정도인 7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에 그는 모국의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국가족 일본초청' 사업을 추가로 기획해 1만 2천 명이 엑스포를 관람하도록 했고, 당시 한국관에는 총 62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외국 국가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의 흥행 기록을 썼다.

1985년 제38대 민단 단장에 당선된 그는 88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결성된 후원회 명예회장을 맡아, 모금 성공의 관건이었던 일본 정부의 기부금 면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당시 재일동포 모금액 525억 원은 체조·수영 등 올림픽 경기장 건립 등에 쓰이며 올림픽 성공 개최를 견인했다.

1987년에는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 동포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를 제안하고 각국의 동포 지도자 303명을 도쿄로 모아 회의를 열었고, 이는 현재 재외동포청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의 모태가 됐다.

박 전 단장은 일본에서 거둔 성공을 모국의 경제 발전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1973년 구로공단에 전자 부품회사 '대성전기'를 설립해 일본에서 습득한 선진 기술과 자본을 모국에 들여와 우리나라 산업화에 일조했고, '재일한국투자협회'와 '신한은행' 설립에도 참여해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모국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그가 1987년 자신의 고향인 함양군에 기증한 벚나무 1만 2천 그루가 백운산 자락(16km 구간)에 심어져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백운산 벚꽃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 '운암장학회'를 설립해 자신의 고향 청소년 39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초등학교 학습 기자재·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고향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75년 보국훈장 삼일장, 1979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9년 체육훈장 청룡장, 1994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상덕 청장은 “박병헌 단장은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권익을 지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다”며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모국 투자와 후원 등 다방면에서 조국의 발전과 한민족 단합에 일필생을 바친 그를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광복 80년, 미완의 독립운동과 통일의 과제』 학술대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대하게 개최

(3편의 계속) 이범진 공사 기념관 탐방 및 기념 행사

학술대회 이후, 자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내에 위치한 이범진 공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설명을 듣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담가 기념수와 기념패 전달 행사를 가졌다. 기념패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의 독립 외교를 개척한 이범진 공사의 뜻을 기리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증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참석자들은 이후 고려인 고문위원들의 안내로 이범진 공사의 발자취를 따라 약 2시간에 걸친 역사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깊이

있는 역사적 체험을 가졌다.

현재 이범진 공사 기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그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와 역사 탐방 행사는 러시아 내 한인사회와 자문위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향한 연대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각 지역 협의회와 자문위원들 간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역사 교육과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6월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스크바 협의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회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홈스크에서 가장 빠른 요트 조종사 선정

6월 16일 홈스크에서 <러시아의 돛단배> 요트 스포츠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연례 러시아의 날 축하 기념일에 맞춰 개최되는 이 행사는 '러시아의 스포츠' 국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요트 조정 경기에 홈스크와 네벨스크에서 9세 - 17세의 선수 29명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옵티미스트(낙관론자). 황금빛 함대'부문에서 1위는 아민 표도로브와 레오니드 벨리카예브가 차지했고, 2위는 와실리 코노왈렌코와 로만 김이 차지, 3위는 안젤리나 알렉산드로와와 스타니스라브 라주틴이 차지했다.

알렉세이 레스노이는 '옵티미스트. 은빛 함대'부문에서 1위를 차지, 2위는 제니스 소볼레프스키가 차지, 3위는 빅토리아 예다피나가 차지했다.

또한 '루츠-미니(햇살-미니)'부문에서는 다리야 코스티나가 황금 메달을 목에 걸었고, 키릴 코스티인 은메달을, 막심 코스티인 동메달을 땀다.

В Холмске определили самых быстрых юных яхтсменов

16 июня. Фестиваль по парусному спорту "Паруса России" прошел в Холмске.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ное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России, проходило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порт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ами гонок стали 29 яхтсменов 9-17 лет из Холмска и Невель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тегории "Оптимист. Золотой флот" первые места завоевали Амина Федорова и Леонид Беликаев, второе место у Василисы Коноваленко и Романа Кима, третьими стали Анжелика Александрова и Станислав Лазутин.

Алексей Лесной выиграл гонку в категории "Оптимист. Серебряный флот".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лся Денис Соболевский,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замкнула Виктория Едапин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категории "Луч-Мини" завоевала Дарья Костина. Серебро у Ки-

рилла Костина, бронзовая награда у Максима Костина.

"바로 여기가 사할린!": 웰리칸 섬에서 범고, 관광객 탄 배를 뺨뺨하며, 소통 시도

사할린에서 관광객들과 범고래의 무리가 노는 영상이 6월에 가장 사랑받는 동영상으로 떠올랐다. 범고래들은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사교성으로 깜짝 기쁨을 안겨주었다.

astv.ru 를 통해 한 목격자는 6월 14일(토) 웰리칸곶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 3인용 고무보트를 타고 약간의 관광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 해안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처음에는 3마리의 어린 범고래가 헤엄치고 놀며, 배 밑에서 프로펠러처럼 헤엄치더니 공기를 내뿜었다. 이는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까불고, 즐거워 하는 게 보였다. 그 다음 더 큰 성체의 범고래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배가 흔들리는 순간 약간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범고래는 인간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안심했다. 범고래들의 쇼는 10분간 계속되었고, 이후 판단건대, '엄마' 범고래는 유치원생들인 새끼 범고래들을 데리고 헤엄쳐 떠났다. 관광객들은 "이건 정말 환상적이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바로 이게 사할린이다! 꿈이 이뤄졌다!"며 관광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Вот это Сахалин!": стая косаток затела пообщаться и окружила лодку с туристами на Великане

Самое милое видео июня - стая косаток стала играть с туристами на Сахалине. Морские животные восхитили своей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ю и общительностью.

Очевидец рассказал astv.ru, что это случилось на мысе Великан в субботу, 14 июня.

- Мы вышли в море на небольшую экскурсию на резиновой лодке втроем. Примерно в километре от берега к нам подплыли сначала трое детёнышей и стали играть, проплывать винтом под лодкой, затем выпустить воздух... Было видно, что им весело - они реагировали на наши голоса, резвились. Потом подтянулись и более взрослые особи, - рассказал сахалинец.

Он признался, что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стало немного страшно, когда лодка качнулась. Однако успокаивало понимание, что косатки ничего плохого человеку не сделают. Шоу длилось около 10 минут, потом, судя по всему, приплыла "мать" и забрала детский сад с собой. - Это было фантастически, просто невероятно. Вот это Сахалин! Мечта исполнилась!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турист.

카멘카 강에서 사람들과 함께 곰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

아니와 지역 카멘카 강에서 곰과 낚시인이 함께 한 영상이 소셜네트워스에 공개되었다. 곰이 사람들과 나란히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있는 영상이 사흐쉽(SakhShip) 텔레그램에 게시되었다. 사할린 주민에 따르면 젊은 곰이 사람들 쪽으로 나와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며 곰은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흐쉽은 '모든 낚시인들에게 장소는 충분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영상을 기록한 사할린 주민들은 젊은 곰이 마치 집안의 개처럼 행동한다며, 안전하게 뛰놀고, 사람들과 나란히 살고 있다고 전했다.

Медведь вышел порыбачить вместе с людьми на реке Каменк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явились видео с медведем-рыбаком на реке Каменк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Хищник добывал пищу рядом с людьми. Кадры опубликовали в Telegram-канале SakhShip.

Островитяне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молодой медведь вышел к людям и пристроился рядом. Не боялся, но и агрессию не проявлял. Хищник спокойно добывал себе пропитание.

«Всем рыбакам места хватает!», — отметили в SakhShip.

Островитяне, записавшие видео,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медвежонок ведет себя совсем как домашняя собака. Спокойно резвится и обитает рядом с человеко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